

The effect of cycle tourism on the quality of life

¹ Won-Jae Seo, ² Joo-Young Jang, ³ Yong-Eun Kim, ⁴ Seung-Jin Han

1.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Tel: +82-31-740-7131, E-mail: wonjaeseo@eulji.ac.kr

2. Co-Auth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3. Co-Author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4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ort and Outdoor, Eulji University, Korea. E-mail: happiness@eulji.ac.kr

Received: May 23, 2018. Revised: June 01, 2018. Accepted: June 17, 2018.

Abstract

Today, the population of cycle participants is consistently increasing. Cycling is becoming not only a form of physical exercise but also a form of tourism in which cycle activities are related to visiting a particular destination. With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ion sport tour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level of cycle tourists' participation affects their quality of life. An online survey link was sent to cycle participants to collect data. Out of the total 337 respondents, a total of 226 sampl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disregarding those that were found to be inadequate or unreliable. For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test, validity, correlations, and regressions were employed with SPSS 22.0. For our first result, we found that the level of cycle particip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quality of physical life. Second, the level of cycle participation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mental life. Third, the level of cycle participation behavi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social life. Fourth, the level of cycle participation behavi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life. Conclus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Cycle, Participation level, Tourism, Destination, Quality of lif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증대는 여가문화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행, 관광분야의 산업적 발전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여가생활에 참여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2015)의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여행 총량 변화에서 국내여행 경험율, 여행횟수, 총비용, 이동총량은 모두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내여행 경험율은 2011년 3,500만명에서 2015년 3,830만명으로 약 300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민소득의 증가, 주 5일제의 시행 등과 같은 정책적 환경 변화가 국민의 여가 및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여행경험율과 마찬가지로 여행횟수도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평균 여행비용과 여행일수도 2011년에 비해 2015년에 꾸준히 상승하였다. 2015년도 여행 경험율은 87.9%로 대다수의 사람이 여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연평균 여행횟수는 5.5회로써 1인당 평균여행일수는 9.3일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스포츠를 매개로한 여행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가시간의 확대와 스포츠 활동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증대는 향후 참여스포츠 관광 시장의 확대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회(2013)는 매달 전국단위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여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대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연합회장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회장배는 최소 15년 이상 진행된 대회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단위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특산품,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대회의 규모는 지역단위의 자전거 대회이지만 지역 동호인에 국한 되지 않고 전국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자전거 시장은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등에 따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전거를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의 선두주자로 인식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하기 위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 자전거 참여관광시장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에 맞는 인프라 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이클은 체력,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교통 및 이동수단에서 2000년대 이후 여가, 레크리에이션, 관광 및 생활체육 활동의 수단으로 그 활용성이 확대되었다(한사비나, 2015). 또한 사이클은 친환경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체험형 여가활동이다. 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 온실가스의 방출, 소음공해, 그리고 도로혼잡을 줄여주어, 어느 여가활동에 비해 친환경적인 개인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관광의 개념을 고려할 때, 사이클 참여관광은 참여스포츠 관광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이클 참여관광은 단순히 사이클을 타는 활동 차원을 넘어, 사이클 참여를 위해 주거지를 떠나 24시간 이상 목적지 인근에 체류하며 사이클과 관광활동이 병행된 개념이다. 즉 사이클 참여관광은 여행이나 관광의 동기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을 구경하고, 그 밖의 휴식, 건강, 스트레스 해소, 문화적 동기, 자아실현 등 관광 목적지의 인적·물적 및 기타 여러 측면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이클 참여관광객은 개인의 성취, 건강과 운동, 경쟁/시합이 사이클 관광의 주요한 이유로 밝혀지면서 스포츠참여관광객의 관광동기와 비슷한 의미로 설명되고 있다(Bull, 2006).

이처럼 사이클 관광을 포함한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써 즐기는 생활체육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여가 활동 유형 가운데 가장 활동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일컫는다(강진홍, 윤만수, 2001; 이종길, 1992). 생활체육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 건강과 체력증진,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라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는 인간이면서 누구나가 즐기고 향유해야만 하며, 평생을 통해서 추구하고 성취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의 보장이다. 생활체육의 보장은 참여자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를 형성·유지하고, 삶을 즐길 수 있으며, 인간생활에 지속적인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질을 제고시킨다(신운하, 2010). 이렇듯 사이클 참여를 통한 관광 활동은 참여자의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신체적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상완, 박래영, 양종훈(2010)은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이클 참여를 통한 관광활동은 성취감 및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나아가 정서적 안정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건희(2004)의 연구에서 MTB는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 주며 공동체 의식 속에서의 협동심과 동료애를 유발하며 서로의 화합과 단결력을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MTB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사고 속에서 서로의 협력과 대인관계에 대한 관용의 태도 또한 배울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스포츠맨십이 형성되며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 Kaplan(1995)은 친밀한 사회집단이 없는 사람에게서 질병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며, 사회적 지지가 좋고 대인관계가 폭넓은

개인은 여러 종류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삶에 대한 사기가 높게 나타나 일상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둘 이상의 개인이 참여하여 팀을 구성하고 상호 협조하게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쟁스포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사이클 참여를 통한 관광활동은 공동체 의식 속에서 협동심과 동료애를 유발하며 서로의 화합과 단결력을 유지시켜 준다. 또한 사이클 실력이 상승함에 따라 장비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이클 관광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사이클 참여를 통한 관광활동은 이질적인 개인 유기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융화하여 화합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이클 참여 관광활동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사이클을 매개로 여행하는 스포츠관광 참여수준이 참여자의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참여 스포츠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이슈들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 수준은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이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빈도는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빈도는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빈도는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빈도는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사이클 동호회 회원 중 사이클 활동을 통해 관광에 참여한 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있는 표본의 확보를 위해 전국의 사이클 동호회의 정보를 검색하여 이메일 혹은 유선으로 허락을 득한 동호회에 한하여, 설문지를 동호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밴드에 등록된 사이클 동호회에 가입하여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링크를 게시하여 추가자료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방식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서 총 337명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한 총 22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Table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71	75.7
	여성	55	24.3
연령	20세 ~ 29세 미만	58	25.7
	30세 ~ 39세 미만	81	35.8
	40세 ~ 49세 미만	51	22.6
	50세 ~ 59세 미만	30	13.3
	60세 이상	6	2.7
학력	고등학교 졸업	13	5.8
	대학교 재학	20	8.8
	대학교 졸업	154	68.1
	대학원 재학	3	1.3
	대학원 졸업	20	8.8
	전문대학 졸업	16	7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	1	0.4
	100만원 ~ 200만원 미만	16	7.1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	15.5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2	18.6
	400만원 ~ 500만원 미만	51	22.6
	500만원 이상	81	35.8
합 계		226	100.0

2.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연구변인별 설문문항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은 명목척도와 구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사이클 관광 참여수준(경력, 참여 빈도, 평균 여행일수)은 구간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인 삶의 질(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삶의 질)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7점 리커르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인 질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4문항, 참여수준 3문항(김오성, 2011), 세계보건기구(WHO, 1996)의 세계 보건 기구 삶의 질 보고서에서 추출한 신체적 삶의 질 3문항(예, 사이클 여행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정신적 삶의 질 5문항(예, 사이클 여행은 삶에 생동감을 준다), 사회적 삶의 질 4문항(예, 사이클을 통해 대인관계가 좋아졌다), 환경적 삶의 질 6문항(예, 사이클 여행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다)으로 총 25문항을 본 연구의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인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연구진은 문항의 난이도, 적합성 및 명확성 등 전반적인 설문지의 구성을 검토 한 후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측정 도구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각 개념을 구성하는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의 신뢰도 계수는 .775 ~ .848로 나타났다. Nunnally(1978)는 0에서 1까지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일 때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진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이클관광 참여빈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이클 참여행동 분석

사이클 참여 관광자의 참여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35.3%(n=80)가 1년 ~ 4년 미만의 사이클 경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32.3%(n=73)가 4년 ~ 8년 미만의 사이클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사이클 참여 빈도는 주 1회 ~ 2회 미만이 126명(55.8%), 주 3회 ~ 4회 미만 53명(23.5%)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의 73.9%(n=167)이 당일 일정으로 사이클을 이용한 관광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하루 일정의 여행행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사이클 관광행동 분석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이클 경력	1년 이하	6	2.6
	1년 ~ 4년 미만	80	35.3
	4년 ~ 8년 미만	73	32.3
	8년 ~ 12년 미만	41	18.1
	12년 이상	26	11.5
사이클 참여 빈도	1회 ~ 2회 미만	126	55.8

	3회 ~ 4회 미만	53	23.5	
	5회 ~ 6회 미만	24	10.6	
변수	비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참여빈도	5.330	.133	40.112	.000

	7회 이상	16	7.1
평균 여행 일수	당일	167	73.9
	기타	59	26.1
합 계		226	100.0

3.2. 사이클 참여빈도에 따른 삶의 질 간의 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사이클 참여빈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이클 참여빈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의 하위변인인 신체적 삶의 질, 정신적 삶의 질, 사회적 삶의 질, 환경적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더미변수를 이용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사이클 참여빈도가 신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1>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행동 수준은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신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0.97(p=.146)$ 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0.9% 였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결과 $F=2.124, p=.146$ 로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β_i (기울기)가 모두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신체적 삶의 질의 예측변인으로서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3> 사이클 참여빈도가 신체적 삶에 미치는 영향

	.124	.085	0.97	1.457	.146
R ² =.009, F=2.124, p=.146					

2) 사이클 참여빈도가 정신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2>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정신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113(p=.090)$ 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1.3%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결과 F=2.892, p=.090로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β_i (기울기)가 모두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정신적 삶의 질의 예측변인으로서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4> 사이클 참여빈도가 정신적 삶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참여빈도	5.200	.123		42.330	.000
	.134	.079	.113	1.701	.090

R²=.013, F=2.892, p=.090

3) 사이클 참여빈도가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3>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사회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037(p=.582)$ 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0.1%으로 나타났다.

<Table 5> 사이클 참여빈도가 사회적 삶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참여빈도	4.988	.127		39.197	.000
	.045	.082	.037	.552	.582

R2=.001, F=.304, p=.582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결과 F=.304, p=.582로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β_i (기울기)가 모두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사회적 삶의 질의 예측변인으로서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4) 사이클 참여빈도가 환경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 4>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사이클 참여행동 수준이 환경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eta=-.004$ ($p=.951$)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결과, F=.004, p=.951로서 $\alpha=.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사이클 참여빈도가 환경적 삶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B	표준오차	β		
참여빈도	4.743	.142		33.470	.000
	-.006	.091	-.004	-.061	.951

R2=.001 F=.004, p=.95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과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도출된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가설 1>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회귀분석 결과, 참여빈도가 신체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이클 참여가 골격근 향상, 폐활량 증가, 비만예방, 성인병 예방 등 신체적인 건강증진과 관련 질병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하는 사이클 참여와 신체적 효익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신운하, 2010; 이건희, 2004; 최병열, 2007)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체적 삶의 질은 사이클 여행을 통해 얻게 되는 신체적 효익에 관한 것으로서, 사이클 참여에 따른 신체적 건강의 긍정적인 변화를 측정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사이클 참여관광자의 경우, 사이클 참여를 통해 신체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동기요인보다는 사이클을 매개로 한 관광과 여행의 동기요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반적인 사이클 참여와 달리 사이클 참여관광은 건강증진 외에 기분전환, 스트레스 해소, 일상탈출, 주변경관관람 등과 같은 여행관련 동기와 기대가 효익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사이클 참여가 관광의 목적과 결합되었을 때 발현되는 관광의 동기요인의 큰 영향력이 사

이를 참여 관광객이 지각하는 신체적 효익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참여관광의 동기 요인 중 참여관련 동기와 관광관련 동기 요인이 지각된 신체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설 2>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정신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회귀분석결과, 사이클 참여관광 빈도는 정신적 삶의 질의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이클 참여가 신체적 효익을 가져오고 이러한 신체적 지각을 통해 일종의 생동감, 성취감, 슬럼프 극복, 우울함 해소, 긍정적인 사고 등과 같은 정신적인 유의함을 지각하게 된다(박효정, 2002; 이재형, 2001; 최병열, 2007)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사이클 참여 관광은 사이클 참여와 관광이 결합된 융합적인 활동으로서 여행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신체적 효익을 지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분석한 가설 1의 연구결과 또한 사이클 참여 관광객들의 경우 신체적 효익에 대한 지각이 낮은 것을 보여준다. 사이클 참여가 관광활동과 연계될 때, 참여자가 지각하는 신체적 효익이 낮아지며 이는 신체적 효익을 매개로 지각하게 되는 정신적 효익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는 사이클 참여관광 수준과 정신적 효익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효익의 매개역할(mediating role)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클 참여관광수준과 정신적 삶의 질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지각된 신체적 효익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에 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가설 3>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는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회귀분석 결과, 사이클 참여관광 빈도는 사회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삶의 질은 대인관계, 다양한 환경에 적응, 사회적 활동에 기여 등의 향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은 단체나 동호인이 아닌 각각의 일반인 중 사이클 참여관광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자가 지각하는 사회관계적 효익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클 참여관광이외의 변인들이 사회적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이클 참여 관광객들의 사회관계적 효익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넷째, <가설 4> “사이클 참여 관광객의 참여빈도가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회귀분석 결과, 사이클 참여관광의 빈도는 환경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클 참여관광을 하면 할수록 환경적 여건 및 지원에 대한 인식과 만족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을 토대로 예를 들어 보면, 사이클 참여관광의 빈도가 높을수록 환경적 여건(공해, 소음, 기후, 교통체증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사이클 활동의 방해요인으로 자동차 소음, 공해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사이클 참여관광의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주민센터 라이딩수업, 동사무소 공기주입기, AS센터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클 참여의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적,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 사이클 여행일수는 당일이 약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이클 관광의 특성상 거주지를 떠나 사이클 여행으로 1박 이상의 활동을 한 사이클여행자들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자료분석이 요구된다. 향후 연구방향과 관련하여, 사이클활동이 관광의 목적을 지니게 될 때, 신체적 효익에 대한 지각이 낮은 것으로 보아 스포츠 참여와 스포츠 관광참여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스포츠 참여관광의 동기 요인 중 참여관련 동기와 관광관련 동기 요인이 지각된 신체적 효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적 효익이 신체적 효익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사이클 참여관광 수준과 정신적 효익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효익의 매개역할(mediating role)에 대한 규명이 요구된다. 셋째, 삶의 질뿐만이 아닌 다양한 스포츠관광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변수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관광 만족도, 충성심, 몰입 등에 대한 연구는 보다 폭 넓게 스포츠관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 Bull, C. J. (2006). Racing cyclists as sports tourists: The experiences and behaviours of a case study group of cyclists in east coast, England. *Journal of Sport & Tourism*, 11(3), 259-274.
- Choi, B. Y. (2008). *The effect of exercise addiction on an exercise participation Characteristic among sport for all group memb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 Hahn, S. (2015). *The effect on leisure involvement and quality of life of serious lei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S. W., Park, R. Y., & Yang, J. H. (2010). Effects of social supports following participation of preliminary senior citizens in leisure sports on their self-esteem and healthy behavior in their old age.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19(4), 369-381.
- Korean Council of Sport for All (2013). Promoting sport club league. Seoul: Korean Council of Sport for All Kaplan, R. M. (1995). Quality of life, resources allocation, and the U.S. health-care crisis. In: *Dimsdale JE, Baum A, editors. Quality of life in behavioral medicine researc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m, O. S. (2011). *A study on the measures for advancing sport tourism for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do. Korea.
- Lee, K. H. (2004). *The study on function of leisure by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MTB club memb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H. (2001).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the sports tour's for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Busan. Korea.
- Lee, J. G. (1992). *The contribution of participants in sports & exercise programs to life satisfaction of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Korea National Tourism Survey 2015*.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Y: McGraw-Hill.
- Park, H. J. (2002). *Relationship of living life satisfaction and liberty of living physical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Yongin. Korea.
- Shin, W. H. (2010). *Relationship between compulsive addiction to sport-gambling and exercise and social-psychological behaviors and the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recreational s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gin University. Yongin. Korea.
- Yun, M. S., & Kang, J. H. (2001). The influence of sport activity on self.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14(1), 173-183.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6). *WHOQOL-BREF : introduction, administration, scoring and generic version of the assessment : field trial version..* Geneva : World Health Organization.